

을지문덕장군의 시 《적장 우중문에게》의 예술적특성

신 창 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의 양상은 생활의 본색을 정서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형상의 독특한 색깔이다.》(《김정일선집》 제5권 중보판 125페이지)

문학예술작품의 양상은 생활의 본색을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형상의 독특한 색깔이다.

생활의 정서적색깔이 다양한것만큼 문학예술작품의 양상도 여러가지로 표현된다.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여오면서 수많은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남겨놓았다.

고구려의 애국명장 을지문덕장군이 지은 시 《적장 우중문에게》는 그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현재 문학사에서는 이 시를 반침략애국주의작품으로 취급하고있으며 예술적특성에 대하여 일정하게 야유조소가 담긴 풍자적성격의 시작품으로 평가하고있다.

이 글에서는 612년에 있는 수나라의 300만대군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고구려의 승리를 지휘한 을지문덕장군이 지은 시 《적장 우중문에게》의 풍자적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시가 현재 문헌으로 남아있는 시들가운데서 가장 이른시기에 나온 풍자시작품으로 된다는것을 론증하려고 한다.

을지문덕장군이 지은 시 《적장 우중문에게》와 관련된 자료로서 17세기의 문인 홍만종의 시평집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우리 나라는 … 문헌들이 대개 없어져 수, 당이래로 비로소 지은것이 있는데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와 신라녀왕이 지은 〈비단짜는 녀인〉과 같은것들이다.》

고구려—수전쟁을 배경으로 창작된 시에서는 국토를 수호하기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애국적감정이 격조높이 구가되고있다.

시에서는 그 어떤 외적도 쳐물리치고 나

라를 지켜나가는 고구려인민들의 높은 애국심이 노래되였다.

신기한 술책은 천문을 꿰뚫고
기묘한 계교는 지리를 통달했네
싸움에서 이기여 공도 높은듯 하니
그만하면 돌아감이 좋을듯 하네

시에서는 개별적인 장수의 애국적감정만이 아니라 고구려의 강대성과 수나라군력의 취약성을 그대로 잘 드러내 보이고있다. 대상에 대한 비판의 강도에서 적군의 허장성세를 한껏 추어올리면서도 그 리면에 비겁자들의 전법이 결국 고구려를 당해낼수 없다고 하는 시의 사상적내용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이 깔려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반침략애국주의사상감정을 결과 속의 불일치로 이루어지는 야유, 조소로 능란하게 구사하여 시의 풍자성을 높이고있다.

일반적으로 풍자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웃음을 통하여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날카롭게 폭로비판하는 예술적수법이다.

풍자시는 반동적인 계급과 낡은 사회현상에 대한 분노와 경멸의 감정이 야유와 조소로 일관되어있으며 풍자적인 웃음으로 부정적인것을 날카롭게 폭로규탄한다.

풍자문학에서 지배계급과 외래침략세력에 대한 타매의 감정은 증오와 경멸의 감정정서로 일관되어있으며 그것은 결과 속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야유와 조소의 웃음으로 특징지어진다.

《적장 우중문에게》의 예술적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채치있는 야유의 수법으로 대방의 약점을 풍자조소한것이다.

300만의 대군으로 고구려에 침입한 수양제의 기도는 전쟁개시 첫걸음부터 고구려의

전법에 걸려 산산이 부서졌다.

지략과 전법에 있어서 고구려와 견줄수 없는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하여 한갓 허장성세로밖에 보이지 않는 적장의 물결은 그대로 통패한 폭소의 대상이다.

시에서 수나라 적장과 군사들에 대한 《찬양》은 정서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감정정서로 일관되어있다.

《신기한 술책은 천문(天文)을 꿰뚫고/ 기묘한 계교는 지리(地理)를 통달했네》에서는 적장을 비범한 지략과 천문지리에 뛰어난 장수로 높이 내세웠다.

예로부터 천문과 지리를 환하게 알고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였으며 성인은 지혜와 덕이 뛰어나게 높은 거룩한 사람, 어떤 부문에 조예가 매우 깊어 극치에 이른 사람, 임금을 높이어 이르는 말로 쓰여왔다.

시에서 적장의 허세와 무지에 대한 《찬양》은 적장 우중문 일개인에 대한 야유조소만이 아니라 침략군의 우두머리인 양제에 대한 야유조소라고도 볼수 있다.

수양제의 지략과 군사적재능을 과장하여 천문지리를 도통한 성인으로 묘사한것은 수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들이고도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고 고구려의 전술에 코가 꺾여 돌아가는 적에 대한 야유이며 동시에 수백만 대군의 위세에 조금도 놀라지 않는 고구려의 강대성과 막강한 군력, 인민들의 애국심의 높이를 보여준것이라고 할수 있다.

시의 다음련에서는 기고만장한 적장의 허세를 만족하면 물러설줄도 알아야 한다는 일종의 풍자적인 야유로써 그 기를 꺾어놓고있다.

방대한 무력만을 믿고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날뛰는 적장의 무지스러운 행위에 대하여 《싸움에서 이기여 공도 높은듯 하니/ 그 만하면 돌아감이 좋을듯 하네》라고 한것은 전쟁의 국면조차 헤아릴줄 모르는 적장의 무지에 대한 야유로서 적군의 약점을 예리하게 해부한데 기초한 날카로운 야유조소인

동시에 고구려인민들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수나라침략군의 멸망은 불가피하다는것을 선고한것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적군의 약점을 날날이 알아내고 모든 준비를 끝낸 고구려의 전술적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수나라장수의 지략과 전법의 무능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을지문덕장군은 수나라군영에 들어가 적들의 실태를 날날이 알아내고 그에 기초하여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다가 기고만장한 우중문, 우문술의 9군을 쓸어넣히고 살수에서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수백만의 대군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고구려인민들의 애국적감정을 반영한 이 시는 적장에게 보낸 최후의 경고장이나 다름없는것으로서 적들을 더욱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다고 한다.

시의 두번째 련에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뚜렷이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다.

《적장 우중문에게》의 예술적특성은 다음으로 시의 전반이 야유조소로 일관될수 있게 알맞춤한 한자시형식과 어휘들을 활용한 것이다.

시에서는 풍자대상의 성격을 일반화할수 있는 한자시형식과 그에 리용되는 어휘들의 능숙한 활용을 통하여 사색적이고도 무게있는 야유조소로써 시의 풍자성을 높이였다.

성인으로 추어올릴수 있는 《신기한 술책》과 《기묘한 계교》, 《천문》과 《지리》와 같은 사색적이고도 무게있는 어휘들을 선택하고 이러한 어휘들을 도식적인 한자시작시법을 따르지 않고 자유분방한 운률에 의거하여 구사한것은 이 시의 풍자성을 높이는데 일정하게 이바지한 예술적형상이라고 볼수 있다.

한자시에서의 평측법이나 압운법, 대구법은 정형률에서 하나의 도식적인 틀거리로 되어있다.

이러한 정형률은 인간생활과정에 체험하게 되는 이러저러한 감정을 짧은 시련속에

깊이있게 함축하여 반영할수 있는 우점도 가지고있지만 지나친 도식으로 하여 자유분방한 인간의 생활감정을 폭넓게 반영하는데는 지나친 제동이 아닐수 없다. 이런데로부터 지난 시기 문인학자들은 한자시의 도식적인 틀을 피하여 과격적인 운률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 《적장 우중문에게》는 바로 이러한 격식에서 벗어난 무정형운문의 5언고시로 창작되었다.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既高
知足願云止

고시는 정형률인 절구나 물시, 배물에 비하여 리용이 비교적 자연스러우며 필자의 사상감정을 자유롭게 구사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한자시에서의 운자들은 운률의 조화로운 구성에 리용되기도 하지만 시의 내용과 결부되기때문에 아무리 무정형운문이라고 하여도 압운만은 무시하지 못한다.

이 시에서의 운자는 축성운목의 《理》, 《止》가 선택리용되었다. 《리치》(理)와 《그치다》(止)는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할수 있게 선택된 운자들이다. 《신기한 술책》과 《기묘한 계교》는 《천문》과 《지리》의 의미색채를 강조하면서 문장성분으로나 품사적으로 대구를 이루고 선택된 운자와의 의미적인 편관속에서 하나의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고있다. 이러한 어휘들과의 조화로운 시행조직은 시가 풍자시로서의 풍격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였다.

이처럼 을지문덕장군의 시 《적장 우중문에게》는 반영하는 내용과 그 예술적특성에 있어서 풍자시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하고 있다.

시 《적장 우중문에게》는 당시 조건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말

할수 있다. 더구나 평시도 아닌 싸움터에서 이러한 시가 창작되었다는것은 당시 고구려 인민들의 예술적재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시 《적장 우중문에게》는 세나라시기 우리 인민들의 풍자문학에 대한 미학적요구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수 있게 한다.

평시도 아닌 전장에서 이런 우수한 풍자시가 개별적인 장수에 의하여 즉흥적으로 창작된것은 당시 우리 인민들의 풍자문학에 대한 미학적견해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이미전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적지 않은 풍자문학작품들이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것을 보여준다.

다른 이여의 문학형태의 발생과 마찬가지로 풍자문학의 발생도 해당 시대의 사회적 성격과 그 시대 인간들의 미학적요구에 기초한다.

세나라시기 고구려의 구전우화인 《토끼와 거부기》, 백제의 구전민화인 《도미와 그 안해》, 신라의 동화적성격의 설화인 《방이와 그 동생》에서 보이고있는 일부 풍자적인 요소들은 이 시기 우리 인민들의 풍자문학에 대한 미학적요구를 엿볼수 있다.

고구려의 구전설화로 전해지는 우화작품인 《토끼와 거부기》에서 토끼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기지있는 행동으로 거부기의 어리석음을 타매하고 고향으로 돌아온것이라든가 또한 백제의 구전민화인 《도미와 그 안해》에서 부화방탕한 왕의 그릇된 처사를 피하기 위해 두번씩이나 거짓변장술로 어리석은 왕을 속여넘기는것 그리고 신라의 동화적성격의 설화인 《방이와 그 동생》에서 형인 방이의 근면성과 동생의 욕심을 동화적인 환상수법을 리용하여 선한것을 내세우고 악한것을 야유조소로 타매하는것과 같은 형상은 비록 풍자문학의 테두리안에서 논의할바는 아니지만 일부 대목에서 찾아보게 되는 주인공들의 기지있는 행동과 부정인물들에 대한 타매의 수법들은 풍자적인 요소

가 엿보이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인민이 창조한 귀중한 풍자문학유산이 외래침략자들의 끊임없는 략탈과 침략으로 적지 않게 인멸되었기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을 풍자문학의 발생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글에 대한 기록과 《삼국사기》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을지문덕의 《적장 우중문에게》에 구현된 풍자적인 형상수준을 놓고 우리 나라에서 풍자 문학의 발생시기를 세나라 시기 또는 그 이전 시기로 추정할수 있다.

이처럼 시 《적장 우중문에게》는 현재 문헌상으로 전해져오는 가장 이른 시기의 풍자시작품으로서 우리 나라 중세 반침략애국주의주제작품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할뿐 아니라 그 풍자적인 형상에 있어서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작품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정의를 사랑하고 온갖 불의적인 행위를 신랄히 폭로비판한 수많은 풍자문학유산을 적극 발굴정리하여 중세 우리 나라 문학사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여야 할것이다.